

부산 스포츠 시선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Vol. **25**
2022. 04

영광의 주역

한국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원로

부산체육인

부산 양궁의 방향을 말하다
부산시광역시양궁협회 조승민 회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테니스 코트를 누비는 6인의 슈퍼 루키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
사상구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실시
-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영광의 주역

한국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원로



부산체육인

부산 양궁의 방향을 말하다

- 부산시광역시양궁협회 조승민 회장



부산스포츠 히어로

테니스 코트를 누비는 6인의 슈퍼 루키

-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



구·군체육회를 가다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

- 사상구체육회



BSC 뉴스

-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실시

-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한국 레슬링계의 살아있는 전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원로

“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년간 레슬링을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

양정모 원로는 한국 레슬링에선 전설적인 인물이다.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 대회에서 해방 후 첫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97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 어떤 차이가 그를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을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이었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하면서 ‘국가대표가 되겠다’, ‘메달을 따겠다’고 생각했고 매 경기 전마다 경기에 대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2015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식



양 원로는 1970~1979년 동안 한국 레슬링 페더급 자유형에서 최상위권 선수로 전성기를 보냈다. 이후 은퇴를 하고 한국조폐공사의 레슬링팀 감독으로 후진 양성을 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희망나무 커뮤니티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소장품인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청룡장 등 13점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기증했다. 소장품은 부산광역시체육회 1층에 자리한 부산국제기념전시관 내 ‘부산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영구 보존되어 부산을 빛낸 체육인 18인에 포함돼 전시되고 있다.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원로는 앞으로 어떤 선수로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되길 바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 바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0년간 레슬링을 한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앞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 원로. 그가 있어 한국의 레슬링은 든든하다.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남겠다는 그에게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앞으로 한국 레슬링계에 제2의 양정모, 제3의 양정모가 나오길 기대해본다.

부산 양궁의 방향을 말하다

부산광역시양궁협회
조승민 회장

“

한국이 세계적인 양궁 대국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수들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협회의 정책이나 목표가 양궁을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

평소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선친에 이어 (주)동진테크원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조승민 회장은 회사 경영으로 바빴던 언제쯤인가 문득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어 주변 지인을 통해 부산광역시체육회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체육회의 여러 회원종목단체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양궁이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조용하다보니 활동적인 운동보다는 양궁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시작한 연애 상대가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것처럼 양궁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좋아졌으니까요.”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2019)



부산광역시양궁협회장배 양궁대회(2021)

그렇게 그는 2019년부터 양궁협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조승민 회장은 현재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중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것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융합이다. 전문체육을 발전시키는 한편, 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부산에서 양궁을 찾는 대중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조승민 회장은 특히 전문체육 발전을 위해 인재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부산 내 여러 학교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과 마주하면서 양궁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했다.

평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조승민 회장은 주체적으로 사는 인생을 위해 세부 시간까지 계산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그에게 당초 양궁협회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운영하게 된 이상 차기 회장을 위해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한다. 조승민 회장은 스포츠 꿈나무 양성과 클럽 활성화 등 당면한 과제를 향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부산의 양궁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테니스 코트를 누비는 6인의 슈퍼 루키

동래고등학교 테니스부는 정구부로 시작하여 오늘날 테니스부로 발전해 106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그래서일까. 동래고 테니스부는 동문회와 테니스부 선수 동문회의 든든한 지원 아래 성장하고 있다.

동래고 테니스부는 현재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테니스부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강조한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훈련을 마친 선수들에게 코트를 개방해 오후 10시까지 테니스 연습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에는 최고 기록을 경신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테니스대회와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바볼랏 전국남녀 테니스대회 모두 단체전 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제47회 대통령기 테니스대회 단체전 3위를 기록했고, 김은재 선수가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테니스 개인전 2위를 차지했다.

동래고 테니스부의 올해 계획은 전국체전에서 최고 성적을 내는 것이다.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훈련이 제자리를 잡은 만큼 더 힘찬 도전을 하는 그들이 앞으로 어떤 좋은 소식을 들려줄지 기대해본다.

사상구체육회



함께하는 사상구! 소통하는 체육!! 시민체육대회의 절대 강자

지난해 '부산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사상구체육회는 체육대회 개최 이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강팀이다. 부산시민체육대회 3연패(2015~2017년), 부산씨름왕선발대회 1위(2017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민선 1기 사상구체육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출범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제약들로 인해 새롭게 계획한 사업은 물론, 기존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사상구체육회는 이런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실내 공간에서 하던 수업을 직접 실외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맞춘 ‘걷기 좋은 사상 한바퀴’와 ‘신나는 사상! 건강 3종 경기’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상구는 낙동강이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모터보트, 제트스키, 카약, 조정, 동력 고무보트 등 수상레포츠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삼락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삼락복합문화센터’와 사상구 전용 축구장 준공(2024년 예정)을 앞두고 있다.

사상구체육회는 볼링, 파크골프, 탁구, 배구, 족구, 에어로빅, 필라테스 등 생활체육교실과 유아체험활동 지원, 이동식 건강체력교실, 장애인체육교실,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등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체육 환경의 개선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은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증진으로 이어져 ‘건강한’ 사상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 실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18일(금)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구·군체육회 및 회원종목 단체 실무자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2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단체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직무연수는 △체육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및 소양 함양 △회원단체 간 정보교류 및 상호 친선도모 △기초 직무지식과 필수 교육을 통해 행정 능력 함양 등을 위해 매년 실시된다. 올해 개최한 연수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별 업무 교육과 집체 인권교육 2차례로 나눠 실시됐다.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 개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3월 29일(화)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선수단은 총 230명이 참가하여 금메달 1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 종합 득점 421점을 획득하여 15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했다. 선전한 부산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대회 참가 종목단체 선수단 및 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주|대원플러스건설
DAEWON PLUS CONSTRUCTION CO., LTD.



|주|동원개발
www.dongwonapt.co.kr



부산도시가스 | SK E&S

SI system

(주)동신유압

(주)일동
ILDONG Construction Co., Ltd.

박원욱병원

HEE CHANG

星湖海運株式會社

seUn 세운철강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송도해수피아
SONG DO HAESOOPIA

NAMYANG
㈜남양산업개발

BUSAN TAXI
BUSAN TAXI TRANSPORTATION ASSOCIATION

Scom

(株)明進 TSR
SINCE 1973 MJ TSR CO., LTD.

SUNG
CHANG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